

수입원재료 가격 상승이 식품물가에 미치는 영향



이용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yslee@krei.re.kr

1. 왜 식품물가에 주목하는가?

식품 물가는 가계 변화를 가져오는 기본적 요인으로서 타 물가에 비해 변동이 심하다는 면에서 사회의 주요 관심 사항이 된다. 가계의 외식비를 제외한 식료품비 지출액은 2011년 1사분기 기준 33만원이며 총 소비지출액의 13%로 지출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특히 요즘과 같이 가계 부담이 크게 느껴지는 경기 정체기에는 가구, 특히 식료품비 지출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민층이 식품 물가의 변동에 대해 민감해진다.

식료품 지출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가공식품은 원재료로 곡물 등 수입농산물이 많이 사용되는 데 국제 원재료가격이 2010년 하반기 이후 급등함으로써 국내 가공식품 물가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올해 국제 원재료가격은 작년보다 낮지만 평년보다

* 저자 학력, 경력 및 최근 연구:

- 고려대학교 농업경제학과 졸업, 일본 츠크바대학교 사회공학과 수료(경제학박사)
- 농업관측센터 원예실장, 전 식품정책연구센터장, 전 통계위원회 경제분과위원
- 수입원재료 가격상승의 식품물가 파급영향과 대응방향(2011), 김치산업의 중장기 발전전략(2011)

높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정부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식품물가의 움직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이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 글은 지난해 수행한 연구결과의 일부를 정리한 것이다.¹⁾ 원재료 가격의 상승에 따른 가공식품 원가 압박 요인과 국제원재료 가격 변화의 국내 가공식품 물가에 대한 파급 영향을 분석하였다.

II. 가공식품 원재료 구성 및 원가 비중

가공식품은 주로 밀가루, 설탕, 유지류, 유제품, 축산물 등의 원재료를 배합·이용하여 제조·가공되며 원가 비중이 높은 부류로 알려져 있다. 식품제조업체 15개소에 대해 취급 품목별로 조사한 결과, 원재료비가 가공식품 생산을 위한 총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식품 종류에 따라 40~60%로 나타났다. 원재료비 비중이 50% 이상인 품목은 식용유 60%, 오렌지주스 59%, 제빵 51%, 가공유 50%이며, 원재료비 비중이 50% 미만인 품목으로는 라면 49%, 육가공 45%, 과자류·청량음료·빙과류 40%, 커피믹스 39% 등으로 나타났다.²⁾

식품 품목별 주요 공통 원재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빵류는 유제품, 밀가루, 계란, 유지류, 설탕 등이며, 과자류는 밀가루, 설탕류, 유지류, 유제품류, 코코아 등이다. 라면은 밀가루, 팜유, 플레이크, 전분 등이며, 커피믹스는 커피원두, 프리마, 설탕 등이다. 오렌지주스는 오렌지농축액과 설탕이며 청량음료는 액상과당과 설탕이다. 가공유는 원유, 분유, 설탕이며, 빙과류는 시유, 가공버터, 혼합탈지분, 설탕, 초코류, 물엿, 생크림, 야자유 등이다. 육가공품은 국산후지, 국산지방, 수입전지, 수입지방 등이며 식용유는 주로 대두유다.

1) 이 원고는 이용선 외(2011), 수입원재료 가격 상승의 식품물가 파급영향과 대응방향, 정책연구보고 P147,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2) 가공식품 매출대비 원재료가 차지하는 금액 비중은 원재료 가격이 상승(특히 급등)할 때 증가하고, 하락할 때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표 1> 가공식품 품목별 주요 원재료와 구성비

(단위 : %)

품목명		원재료별 비중
제 빵		유제품 36.7, 밀가루 26.5, 계란 14.3, 유지류 12.2, 설탕 10.2
과 자 류	제 과	밀가루 30.0, 설탕류 24.4, 유지류 19.5, 유제품류 4.9, 계란류 2.4
	초코제품	밀가루 26.0, 설탕 13.7, 코코아 13.7, 물엿 12.3, 쇼트닝 6.8, 분유5.5
	비스킷	밀가루 31.7, 유지 및 쇼트닝 20.7, 유제품류 16.5, 설탕 14.3, 전란액 5.2, 코코아 1.4
라 면		밀가루 59.5, 팜유 15.9, 플레이크(건조채소) 20.2, 전분 4.5
커피믹스		커피원두 51.9, 프리마 26.1, 설탕 16.9
음 료	오렌지주스	오렌지농축액 77.4, 설탕 22.6
	청량음료	액상과당 60.0, 설탕 10.0
가공유		원유 45.1, 분유 10.7, 설탕 4.0
빙과류		시유 25.0, 가공버터 18.0, 혼합탈지분 14.0, 설탕 10.0, 초코류 9.0, 물엿 5.0, 생크림 4.0, 야자경화유 3.0
육가공(햄류)		국산후지 52.1, 국산지방 6.2, 수입전지 27.2, 수입지방 14.5
식용유		대두유 100.0

주: 공통 원재료만을 포함하므로 원재료 비중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이용선의(2011), 수입원재료의 가격상승의 식품물가 파급영향과 대응방향, KREI

III. 원재료 가격 상승의 가공식품 물가에 대한 파급영향

원재료 수입가격 상승에 따라 가공식품 물가(원가)가 얼마나 상승압력을 받는지를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 추정했다.

- ① 가공식품 품목별 주요 원재료 구성(비중)을 표준화함.
- ② 원재료별 가격상승률은 수입 원재료가 통관가격(관세청) 기준, 국내산 원료는 생산자물가(한국은행)를 기준으로 함.

2010년 평균가격과 2011년 1~5월 평균가격을 대비하여 계산하고 이를 ①에서 구한 원재료별 비중을 곱하여 합계함. 단 수입가격은 달러 표시 금액을 원화 표시

금액으로 환산하여 계산함.

- ③ ①에 의거하여 원재료별 총원가대비 비중을 구하여 합산함.
- ④ ②에서 구한 품목별 원재료가격 상승률과 ③에서 구한 원재료비 원가대비 비중을 곱하여 원료비 상승에 의한 총원가 상승요인을 산출함.

<표 2> 가공식품 품목별 원가상승요인 추정

(단위 : %)

품목명	원재료에 의한 원가상승 요인			
	원재료가격 상승률	원료비의 원가대비 비중	총원가 상승 요인	
제 빵	20.9	0.510	10.66	
과자류	제과	14.4	0.400	5.75
	초코제품	12.6	0.400	5.02
	비스킷	16.6	0.400	6.63
라 면	22.9	0.485	11.10	
커피믹스	37.5	0.390	14.64	
음 료	오렌지주스	51.4	0.590	30.34
	청량음료	26.4	0.400	10.58
가 공 유	8.9	0.500	4.43	
빙 과 류	21.4	0.400	8.57	
육가공(햄류)	81.7	0.450	36.78	
식 용 유	37.0	0.600	22.23	

주 1) 수입단가(관세청, 수입금액을 수입물량으로 나눈 것), 생산자물가(한국은행), 업계조사(원재료 구성 및 총 원가 대비 비중) 자료에 기초하여 산출

2) 2010년 1~5월 평균에 대한 2011년 1~5월 평균 증감률로 계산

자료: 이용선외(2011), 수입원재료의 가격상승의 식품물가 파급영향과 대응방향, KRE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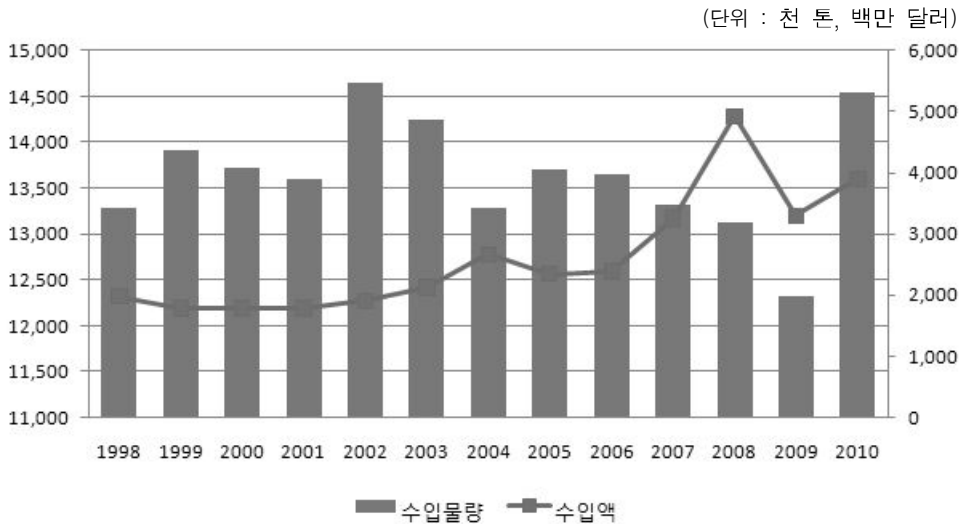
원재료별 가격변화율은 다음의 가격지표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주로 수입에 의존하는 원재료는 수입단가, 국내 생산에 의존하는 원재료는 생산자물가, 기타 수입과 국내생산에 일정 비율을 의존하는 원재료는 기타 기준을 적용하였다. 관세청의 수입단가 기준 원재료는 가공버터, 대두유, 분유, 생크림, 쇼트닝, 수입전지, 수입지방, 야자경화유, 오렌지농축액, 유제품, 유지류(쇼트닝), 커피원두, 코코아(초코류), 팜유, 혼합탈지분 등이다. 한편 생산자물가 기준 원재료는 밀가루, 계란(전란액), 물엿, 설탕, 원유(시유), 프리마, 플레이크(건조채소), 전분 등이며 기타 기준을 적용한 원재료는 국산지방·국산

후지((사)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와 액상과당(수입, 생산 평균 적용) 등이다.

품목별 원가 상승률 추정 결과, 2011년 1~5월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인해 가공식품 총 원가는 다음과 같이 품목에 따라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20% 이상 증가한 품목은 육가공(햄류), 오렌지주스, 식용유 등이며, 10~20% 증가한 품목은 : 커피믹스, 라면, 제빵, 청량음료 등으로 추정된다. 한편 5~ 10% 증가한 품목은 병과류, 과자류로 추정된다.

국내 가공식품의 수입원료 의존도가 30% 이상으로 알려져있다. 특히 제분(밀가루), 제당(설탕), 전분 및 당류(전분당), 유지류 등 소재식품의 해외원료 의존도는 90% 이상으로 매우 높다. 우리나라의 주요 곡물 수입량은 2002년 이후 감소 추세를 나타내다가 2010년에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한편 국제곡물 수입금액은 가격 상승에 따라 증가 추세를 나타낸다.

<그림 1> 연도별 주요 곡물 수입 실적



주: 주요 곡물에는 옥수수, 대두, 밀, 쌀 포함(쌀은 MMA 물량).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http://www.kati.net>)

국제농산물 가격의 변화는 수입원재료에 의존하는 가공식품의 생산원가나 가격에 영향을 미치며, 영향을 미치는 데에는 6개월 내외의 시차가 발생한다. 국제 농산물가격의 변동은 수입계약 체결, 수입을 위한 현지 및 해상 수송기간, 그리고 국내 가공 과정 등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영향 파급에 시차가 발생하는 것이다. 밀, 대두, 옥수수, 원당 등의 국제농산물 가격의 수입 가격에 대한 영향이 3~5개월, 수입 가격의 국내 생산원가에 대

한 영향이 1~3개월의 시차를 갖고 미친다.

2007년 기준 산업연관표를 농림어업과 식품산업을 중심으로 재구성하여 분석하면 밀, 대두, 옥수수, 원당 등 국제원자재 가격 10% 상승에 따른 업종별 물가에 대한 영향은 제분 6.2%, 제당 5.2%, 배합사료 4.0% 등의 순으로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³⁾.

IV. 시사점

수입원재료 가격의 변동은 국내 가공식품의 수급과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는 결국 소비자의 가계지출에도 혼란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민간은 이러한 식품가격의 변동요인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수입농산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일정기간 수입 관세를 낮추는 방안(할당관세의 탄력적 운용), 취약계층에 대한 식품지원대책 강화, 공정거래여부에 관한 모니터링 지속 등 국내 가공산업의 경쟁구조를 강화하는 방안, 소비자에 대한 효과적 가격정보 제공방안, 국제곡물 및 국내 가공식품 수급에 대한 관측모니터링 실시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SDI**

3) 이상과 같은 분석의 한계에 대해서는 이용선의(2011)를 참조